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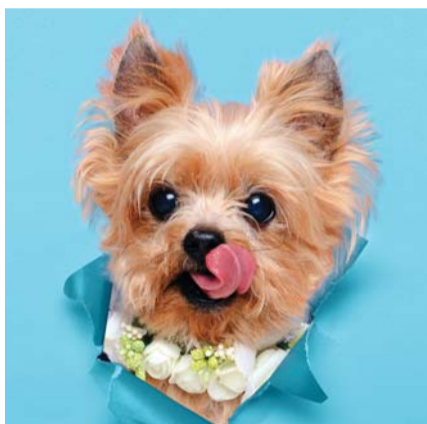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8) 펫토그래퍼 박세진 씨



펫토그래퍼 박세진 씨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카메라에 담은 ‘펫토그래퍼’ 박세진씨 “촬영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크기·종류부터 털 색깔까지 촬영 전 견주와 컨셉트 의논 화보·훈련 수료증 등 다양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현대인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의미를 넘어 깊은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다. 최근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는 반려인들이 늘고있다. 귀여운 표정의 증명사진과 프로필 촬영은 물론 모델 못지않은 멋진 포즈로 화보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러한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펫토그래퍼’다.



박 작가는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차리는 게 꿈이다. 그곳에서 마음껏 반려동물을 만나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다르게 광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스튜디오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사진 찍는다는 광고는 많은데 반려동물 촬영한다는 이벤트는 없어요.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반려동물 사진촬영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또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그냥 사진 한장이 아닌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펫토그래퍼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사진작가를 뜻하는 ‘포토그래퍼’(photographer)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람을 뜻한다. 반려동물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펫토그래퍼는 아직 생소한 직업이지만 최근 반려동물 애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요. 특히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게 보여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는 견주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려운 건 없다고 봅니다.”

이안종터라고요. 반려견의 아픈 모습보다 밝은 모습 위주로 찍었는데 촬영하는동안 견주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예전에 반려견을 떠나보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덩달아 슬펐어요.”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스튜디오에서 펫토그래퍼로 활동중인 사진작가 박세진 씨를 만났다. 박 작가는 “처음엔 인물사진을 배우다가 반려견 촬영을 알게됐고 이 분야에 흥미를 느껴 전문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물 사진 촬영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알게 됐고 사람마다 표정과 개성이 다르듯이 반려동물들도 다른 개성과 색깔이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펫토그래퍼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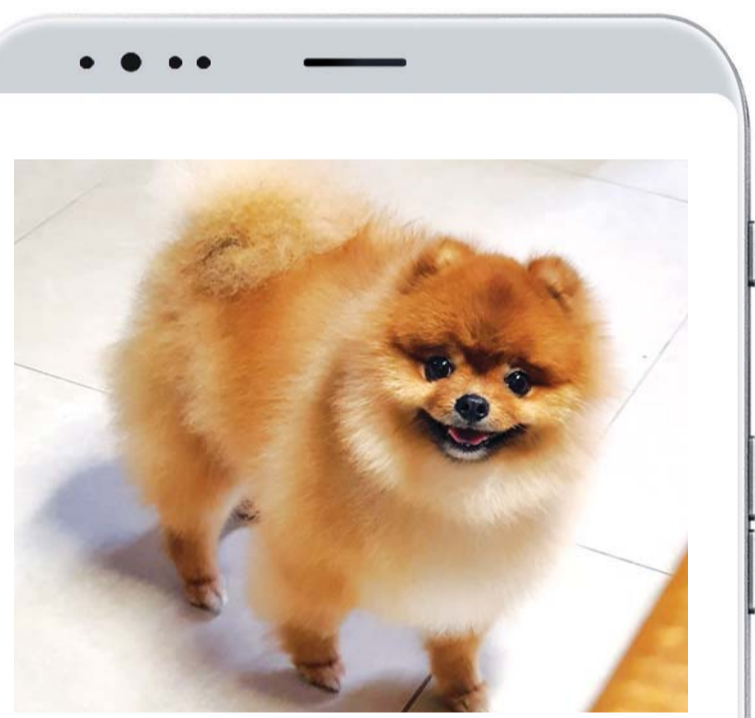
일주일에서 3-4팀 정도 촬영을 한다는 박 작가는 촬영 전 주인과 컨셉트를 의논한 후, 크기와 종류, 털의 색상 등 각각의 특성을 살려 찍는다. 언제 어느 순간 원하는 포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촬영하는 내내 카메라를 놓지 않는다. 20-30분 정도 반려동물이 스튜디오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낯설어 하지 않도록 눈을 마주치고 칭찬도 해주면서 순간을 포착한다.

이밖에도 훈련 수료증에 사용할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한 말티즈 ‘강강이’, 큰 등치의 아키타견과는 거리가 먼 귀여운 이름을 가진 ‘찰쌀이’ 등도 인상깊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촬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으로 갖춰야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클수록 그들의 매력이 카메라에 더 잘 담기는 것 같아



I ♥ PET



매일 카페로 출근하는 ‘쿠사장’

사랑동이·애교동이 ‘쿠모’

저희집 사랑동이, 애교동이 ‘쿠사장’ 쿠모(Mumo)입니다. 쿠모는 3살하고 4개월된 포메라니안이에요. 지난해 1월 함께 사는 언니 가족이 2살 된 쿠모를 입양했으니, 저와는 이모와 조카 사이쯤 됩니다. 쿠모는 애교가 엄청 많고 특히 사람들 좋아해요. 매일 이모와 누나가 운영하는 카페에 함께 출퇴근 하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을 저희보다 더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희들끼리는 쿠모를 ‘쿠사장’이라고 해요. 이모와 누나가 직원으로 일하는 셈이죠. 집에서는 서로 쿠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엄마와 이모, 누나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그중 1위는 단연 이모입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쿠모를 볼렀는데 이모 품에 안겼으니 제가 승자가 된 거죠. 쿠모에게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공을 들인 결과에 보답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형은 교육담당이라 무서울 때도 있고, 누나는 자칭 쿠모 화풀이용 샌드백이 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운 쿠모지만 그 중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건 목욕을 잘한다는 점이에요. 목욕 시간이 되면 먼저 찾아와 기다려주고, 털을 말릴 때도 얼굴은 스스로 말리겠다고 타올에 얼굴을 비비는 착한 아이입니다. <한주영·광주시 동구 대인동>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san Primo Men's and Women's Wigs). It features a red background with white and yellow text. On the left, it lists awards: '광주전남 기능장 호' (Gwangju Jeonnam Functional Award), '국무총리상 표창' (Prime Minister's Commendation),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s Commendation),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Gwangju City Mayor's Commendation), and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Gwangju Nam-gu Mayor's Commendation). The main text reads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san Primo Men's and Women's Wigs). Below this, it says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Special Wigs, Pre-made (Touch) Tapeless X Pinless),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Technician directly performing 37 years of surgery on over 10,000 people), and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H.M. Co. same grade product 130,000 won 59,000 won~). At the bottom, it provides the phone number '062 673 5858 (모발모발)' and the address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Gwangju City, Nam-gu, Juwol-dong, Rain Garden Apartment, 2nd floor (next to Daekwang Girls' High School)). It also notes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Closed every Tuesday, normal business on Sunday).